

# 파룬궁 천안문 분신 양국 외교문제 비화

지구촌 불교 / 美·中 인권갈등

파룬궁과 티베트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탄압이 자칫 중·미간의 외교적 갈등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미국이 최근 파룬궁 제재, 티베트 불교지도자 망명 등을 계기로 중국의 인권문제를 유엔 인권위원회에 상정하려 하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한동안 잠잠했던 양국간의 인권 논란이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음력 설인 24일 텐안문(천안문) 광장에서 시위를 벌이던 파룬궁 수련자 200여명을 체포해 미국을 자국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최근 리자오싱 주미 중국 대사과 면담을 갖고 중국정부가 파룬궁 수련자 시위를 원천 봉쇄한 것과 관련, 중국 정부는 인내를 보여줘야 하며 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 정부의 파룬궁 탄압과 중국내 인권문제를 간접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美 구금된 종교단체 수련자 석방 요구 중 "내정간섭"반발...비방·탄압 강화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도 텐안문 파룬궁 수련자의 분신 사건은 유감이며 중국 당국은 구금된 파룬궁 수련자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중국이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탄압과 언론 및 인터넷에 대한 통제 등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압력 수위를 높이고, 티베트 불교에 대한 박해를 강화하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중국이 이미 서명한 인권과 정치적인 자유에 대한 국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 같은 중국의 인권문제를 논의할 유엔 인권위원회가 3월 제네바에서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의 성명은 조지 W부시 대통령 취임 초기라는 점에서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국무부의 발표는 의회가 중국의 경제 지원을 허용하더라도 행정부는 지속적으로 중국의 인권 탄압을 견제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미 중국대사관의 유슈닝 대변인은 즉각 "인권이란 미명아래 중국의 내정에 간섭을 하려는 미국의 의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그는 "미국이 과거에도 8차례나 유엔을 통해 중국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려 했으나 실패했다"면서 "이번에도 그 같은 시도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미국은 여러 차례 중국의 인권문제를 유엔 인권위원회에 상정, 연대제재를 가하려 했으나 다른 국가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중국과 미국 양국 관계는 지난 1999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베오그라드 주중대사관 폭격으로 급랭했으나 지난 해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 등을 계기로 호전됐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국가비밀방어체계(NMD) 정책과 함께 파룬궁 등의 중국 인권문제에 대한 강경정책이 앞으로 중미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오종욱 기자(gobaou@buddhapia.com)



승오스님의

## 경전읽기

### 안반수의경 ②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 동북부인 실크로드의 서쪽에 있었던 율지국 등에서 결과부좌를 하시고 90일 동안 안반수의를 행하면서 시방의 모든 인간들과, 날고 꿈틀대는 새와 동물들까지도 구제하고자 하였다. 요컨대 부처님은 호흡에 정신을 집중하는 안반수의를 닦고서 이것을 전하여 모든 인간들과 동물들로 하여금 깨달음을 얻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안반수의는 즉 수식관이기에 호흡의 출입을 통한 조화로써 안심입명(安心立命)하여 구경열반(究竟涅槃)에 들고자 하는 것이다. 그 한 단락을 살펴보자. 부처님께서 <안반수의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 "안은 생하는 것이고, 반은 멸하는 것이며, 마음은

나감(卮)을 보아 하나가 되면 호흡에 정신을 집중시키는 것은 무의식중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의식이 집중되는 것이 곧 인연이 성숙되는 것이요 이것을 지키는 것이 곧 도(道)라고 하는 것이다.

숨이 들어올 때와 나갈 때 정신을 집중하게 되면 그 숨은 길고도 깊게 들어오고 나간다. 이것이 생명의 창조와 휴식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면서 자연의 도리를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들숨과 날숨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때, 안반수의는 그대로 우주의 진리 자체이며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실상인 것이다.

부처님은 <잡아함경(雜阿含經)> 제29권 10에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아, 들숨과 날숨을 생각하는 것을 잘 익혀야 한다. 그러면 몸이 피로하지 않게 되고 눈이 아프지도 않으며 관(觀)

## '안반수의'는 우주의 도리

### 부처님 90일간 수행후 인간·동물 구제

인연을 짓는 것이고, 수는 도가 되느니라." (安爲生 數爲滅 意爲因緣 守者爲道也)

이것을 설명하자면, 호흡함에 있어서 들숨을 생(生)이라 한다면 날숨은 곧 멸(滅)인 것이다. 멸이란 단순히 없지 않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오는 생을 위해서 쉬는 것이라고 본다면 생과 멸은 상의상관성(相依相關性)을 가지게 되므로 멸을 통해서 생이 있고 생은 멸에 의해서 다시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생과 멸은 대립관계가 아니라 상호의존(相互依存)하는 관계이며 둘이 아닌 것이다.

이와 같은 들숨과 날숨 속에 우리의 의식을 한 곳에 집중하게 되면 곧 주관과 객관이 하나가 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된다. 의식이 집중되지 않으면 곧 마음이 산란하게 되고 마음이 산란하면 들숨과 날숨을 볼 수 없게 된다.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면 호흡이 일정하지 않고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다. 마음이 안정되어 숨의 들어오고(入)

하여 즐거움에 머물 수가 있고 애착에 붙들지 않게 되리라. 이와 같이 들숨과 날숨을 닦으면 좋은 결실과 큰 복의 이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선정(禪定)에 들면 드디어는 자비심을 얻을 것이며 미혹을 떠나 깨달음에 들어갈 것이다"고 하였다.

부처님은 호흡을 통하여 우주의 실상을 알았고 우주의 뜻이 바로 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나의 삶이 중생의 삶인 것처럼 모든 중생들이 호흡을 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모든 생명은 호흡을 통해서 생겨나고 멸하게 되는 것이다. 올바른 호흡이야말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인 동시에 곧 도(道)다.

화두참선을 할 때에도 역시 수식관(數息觀)은 매우 중요하다. 수식관이 가장 기본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기(上氣)가 되어 수행하기가 힘들게 된다. 상기병(上氣病)은 수식관으로만 고칠 수 있다고 한다.

해인사 승가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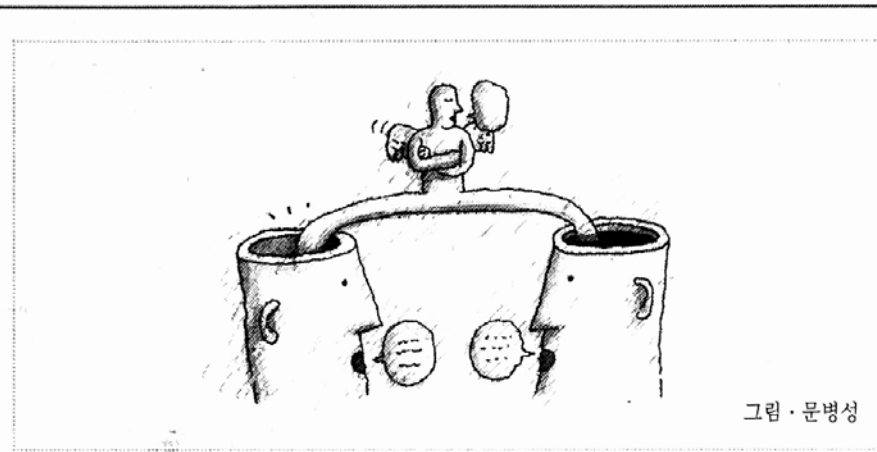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 공공 속에 무한한 가능성 있다

### 불교와 과학 <17>

#### 꼭 차 있는 빔

우주 공상영화에 등장하는 외계존재를 머리 속에 그려보자. 그 외계존재를 그리는 영화 제작자는 최대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엄청난데 과거의 모습을 연출해 내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상상력도 역시 인간의 상상력이라 외계존재의 과거성을 표현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기존의 인간 언어로 과거의 존재를 재구성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과거하더라도 인간이 갖고 있는 언어의 상상력으로 국한되어 재구성된 존재라는 것이다. 눈이 배꼽에 붙었고 다리가 새 개이며, 팔이 여덟 개를 갖고 있는 과거이더라도 인간의 눈과 다리, 팔이라는 언어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언어와 상상력을 초월한 존재는 없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은 우리들을 매우 당혹스럽게 만든다. 그렇게 언어의 상상력을 초월한 존재가 없다는 인간 언어에 제한되지 않은 어떤 초월적 존재의 실재를 완전히 부정한다는 뜻인가? 이 이야기는 상상력과 언어 그리고 감각을 초월하는 어떤 존재자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언어적 제한된 존재와 실재의 세계가 다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비추고 있다. 어떤 생각을 받아들인다면 공과 색의 관계를 다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공과 색의 관계를 우리가 안고 있는 언어의 차원에서 말한다면 마치 서로 간의 모순된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다. 모순관계란 서로가 공존할 수 없는 관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내 저고리의 색깔이 검으면서 동시에 흰색일 수는 없다. 이런 예를 모순이라고 한다. 그러나 검은 저고리와 흰 바지는 당연히 모순이 아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는 공과 색의 관계에서 모순적 관계에 대해 오해를 갖는 것이 있다. 그 오해가 낳은 한 사례를 말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보자. 아인슈타인이 말한 질량과 에너지의 관계인 그 유명한 E=mc<sup>2</sup>이라는 아인슈타인 관계식을 공과 색의 관계로 비유하기도 한다. 물질과 에너지가 등가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유형적인 물질의 질량을 색으로 놓고 무형적인 에너지를 공으로 놓을 때 공과 색이 서로 전환될 수 있는 현

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한가지 전제를 해야 한다. 물질과 에너지는 물리적 차원에서 전환 가능한 물리량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지만 공과 색은 물리적으로 전환 가능한 동일한 사유의 지평선 위에 놓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래서 공과 색은 하나이기는 하지만 어떤 하나의 양성적인 두 존재가능성일 뿐이지, 서로가 서로에게 전환되는 전환 가능한 무엇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런 성격을 두고 논리적으로는 '존재범주'가 다른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색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공이라고 한다면 색으로 가득 찬 세계에서도 공의 호흡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공이 무엇이든 잘 모르지만 공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다해도 색의

공은 심우도에서 보는 심우도에 해당하는 세계이기도 하다. 공을 비어 있음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정통적이라고는 하지만, 꼭차 있음으로 접근하는 방식도 현대 과학시대에는 필요하다고 본다. 비어 있음과 꼭차 있음은 서로 공존할 수 없는 모순관계가 아닌 듯하다. 공은 비어 있음과 꼭차 있음의 두 날개가 있어야 비로소 날 수 있는 새와도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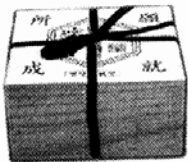
최희종덕/상지대 교수 (jdchoi@chiak.sangji.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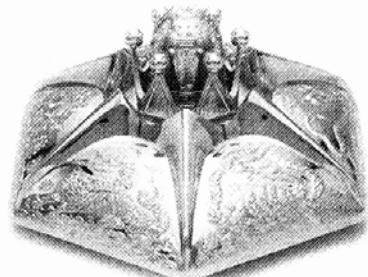
# 소원 성취 명당 육기(氣) 방



옛 부터 금은 보화와 육신(神)을 가정에 두면 액운을 막아준다 하였고 (좌) 청룡(靑龍) (우) 백호(白虎) (남)朱雀(朱雀) (북)현무(玄武) 천하(天下)대장 지하(地下) 대장신(神)의 수호신인 육신이 항상 수호해 준다 하여 소원성취·안전운행·사업흥왕·불화방지·가내화합·시험합격·악귀퇴치·극락왕생·선신수호·삼재예방·관재소멸·운수대통 하게하고 가정을 편안하게 해 주며 천(天) 지(地) 간의 좋은 기(氣)를 받아 나쁜 맥(脈)과 기(氣)를 막아 주고 좋은 혈장(穴場) 명당이 되어 자손대대로 무병장수하고 하는 일마다 잘되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다.



### 기(氣)란 : 현실이다



###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 육기방 수호신장 (六氣方 守護神將) ◆

좌청룡(靑龍): 천하 4방중에 좌측을 담당하는 신으로써 좌청룡이라 불리워진다. 고서를 인용하면 청룡에서 발생하는 생기(生氣)는 자손 번창의 기운, 권력과 지도자의 기운, 재산의 기운을 대표적으로 갖고 있다. 우백호(白虎): 천하 4방중에 우측을 담당하는 신으로써 우백호라 불리워진다. 우백호의 기세에는 부자가 나오고 훌륭한 여성이 많이 배출되는데, 딸과 며느리에게 영향을 끼친다. 청룡이 남성이자면 백호는 여성이라 말할 수 있다. 남주작(朱雀): 천하 4방중에 남쪽을 담당하는 신으로써 남주작이라고 불리워진다. 주작의 기세에서는 큰 재산을 모으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된다. 주작은 현무와 대칭되는 관계에 있다.

북현무(玄武): 천하 4방중에 북쪽을 담당하는 신으로써 북현무라 불리워진다. 현무는 사신사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현무는 한 집안이나 개인에게 특별한 능력을 만들어 주는 생기를 갖고 있어, 현무의 지세가 좋은 지역에서는 능력이 출중한 인물이 배출된다. 현무의 기운은 주작의 기운과 대칭된다. 천하(天下)대장: 천하의 신(神)을 관장하고 지하(地下)대장: 지하의 신(神)을 관장한다. 마을마다 장승이 세워진 뜻은 여기에 있다.

\* 주지스님 찬견 후에 제품을 공급 받으십시오.

명 당 육기(氣) 방은 천지(天地)간에 좋은 기(氣)가 모여 혈장(穴場)이 되고 범 종은 천지(天地)를 진동하게 울리며 모든 집신과 집귀를 내쫓고 범점을 못하게 하며 양관은 관운과 재운과 명예를 얻고 큰 인물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범종과 양관을 떠받치는 여섯개의 명산이 감싸고 있고 신의 수호신인 육신이 자리 잡고 있으며 항상 수호해 줌으로 언제 어디서나 어디로 가든 천지간의 좋은 혈장(穴場) 명당 자리라하여 신비의 황금 보물 명당 육기(氣)방이라 한다.

#### ◆ 꿈의 계시 ◆

6년전 6월 비가 많이 내리던 어느날 머리에서 발끝까지 허한 옷을 입고 키가 아주작은 할머니가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신의 수호신인 육신을 데리고 희미한 안개속에서 저를 부르며 빛나는 황금 보물을 저에게 주시더라. 이 보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야 좋은 명당 자리가 되고 기적의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허시며 희미한 안개속으로 서서히 사라져 버렸다. 범벅 일어나 보니 꿈이었다. 그렇게 많은 비가 내렸는데도 비는 내리지 않고 하늘엔 구름 한점없이 수많은 별들이 빛을 내며 반짝 거리고 있었다.

#### ◆ "보이지 않는다며여뵈직을 어가저말라." ◆

조상이 편해야 후손이 편하고. 액운이 없어야 가정이 편하다. 안전과 액운이 없다고 자만하지 말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것이다. 보아라 돈도 명예도 건강도. 하루 아침에 낙엽되어 떨어지지 않는가. 구름 거칠 날 없을 것이다.

#### ◆ 시용지 ◆

가정집, 공부방, 자동차, 공장, 사무실, 가게, 묘지, 사십구제, 천도제, 등 여러곳에 사용함.

#### ◆ 구입지 ◆

사찰, 암자, 철약관

\* 수험생을 둔 부모님과 많은 분들께 꼭 권장하고 싶습니다.

(주) 명당육기(氣)방 : 051)865-9933 · 864-7878

일본지사 (불교용품전문점) : 06-6741-1923

홈페이지 : www.6kibang.co.kr

◆ 명당육기방은 기묘한 묘법과 비법이 담겨져 불자님의 가정에 안전과 좋은 기운, 자손의 번창, 화합과 재산증식 등 큰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